

끊이지 않는 '주정차 뺑소니'... "처벌 강화해야"

지난 5년간 광주서 4만7000여건 범칙금 부과는 1만8000여건 그쳐 "낮은 처벌 수위로 책임감 결여" 사고 뒤 도주가 낫다... '일파만파' '도로교통법 개정해 처벌 강화해야'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주·정차 뺑소니를 줄이기 위해선 처벌 강화를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차량의 손상 정도에 따라 피해 차주가 자비 부담하는 수리 비용이 벌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법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17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물적피해도주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주·정차 뺑소니는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광주경찰이 발표한 '최근 5년 주·정차 뺑소니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발생 9317건·검거 3573건 △2020년 발생 9061건·검거 3303건 △2021년 발생 9662건·검거 3789건 △2022년 발생 9620건·검거 3959건 △2023년 발생 9456건·검거 3805건으로 실제 처벌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주·정차 뺑소니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도주 운전자를 추적하더라도



주정차 뺑소니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8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B주차장.

실제 검거 비율이 낮을뿐더러 처벌 수위가 약해 물적피해도주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기 쉽지 않은 점이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주·정차 뺑소니는 불기소가 대부분이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대부분 합의를 통해 종결된다"며 "물피도주 운전자를 잡아도 종결, 잡지 못하더라도 종결되는 케이스가 과반이라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피도주 운전자를 잡더라도 처벌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하긴 쉽지 않다"며 "피해 차량의 경우 파손 정도에 따라 자비 부담도 그만큼 더 들어가게 된다. 결국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적 허점으로 인해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주·정차 사고를 내기도 '안 걸리면 좋고 걸려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물피도주 행위는 차량의 물리적 피해가 사고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미미한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태생

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물피도주의 경우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가해자를 찾기 위해선 피해 차주가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찾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권해석에 따르면 물피도주 피해 차주는 CCTV 영상을 경찰 대동 없이 관할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CCTV 영상에선 사고를 낸 차주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물피도주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가해자가 주·정차 차량에 사고를 낸 뒤 도주 없이 떠났다는 증거 제시가 필요한데 CCTV, 블랙박스 확인을 하더라도 접촉이 미미할 경우 상황 파악이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벌 수준이 약해 '주·정차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게 낫다'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법의 한계는 결국 새로운 법으로 채워지기 마련이다. 벌금과 벌점을 올리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물피도주 발생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육군 31사단 군인들, 폭염에 쓰러진 할아버지 구조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해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육군 31사단에 따르면 공병대대 소속 정다혜 대위, 임지영 소위, 박민체 하사, 이수 하사는 지난 8월23일 오후 12시께 업무를 위해 광주 북구 삼각동 인근을 이동하던 중 갯길에 쓰러진 노인을 목격했다.

당시 도로는 폭염으로 인해 달아오른 상태였다. 곧바로 차를 세운 이들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탈진임을 직감하고 그늘진 곳

으로 노인을 부축해 이동시킨 뒤 인근 주민센터에서 생수와 물티슈를 구해왔다.

이들은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노인의 약 봉투를 발견하고 처방한 병원에 연락해 건강 상태를 추가 확인했다. 이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사지를 실시했다.

이들의 빠른 조치 덕에 노인은 의식을 회복했다. 장병들은 119구조대로부터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듣고 부대로 복귀했다.

해당 장병들의 선행은 국민신문고에 글

이 올라오면서 알려지게 됐다.

국민신문고 글쓴이는 "군인들이 보여준 응급처치가 침착하고 조지적이라 놀랐고 많은 시민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응급처치를 주도한 정다혜 대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인데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뿐이다"며 "이런 일을 긍정적인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 삼각동 인근 갯길에서 온열질환자를 신속 구조한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의 모습. 육군31사단 제공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계획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제2항,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의거 발전사업내용의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전소명 : ㈜무안청정에너지 (무안청정에너지1~33 태양광발전소)
- 설치위치 :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월리 846, 846-3, 847, 847-3, 849, 849-3, 850, 850-3, 851, 851-3 (총 10필지)
- 면적 : 669,613㎡
- 설비용량 : 99MW급 (3MW급 * 33개소)
- 사업개시 예정일 : 2027년 9월
- 운영기간 : 2024년 09월 09일 ~ 20년간
-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및 열람요청 이메일 : ksl8862@naver.com
- 열람기간 : 2024. 09. 09 ~ 2024. 09. 23
- 열람내용 :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계획서

2024. 09. 09.
(주)무안청정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 발전소 내용

발전소명	엔에스피태양광 발전소 2호 ((주)엔에스피)	우리태양광 발전소 2호 ((주)우리)	솔라라이트 태양광발전소 ((주)솔라라이트)
대표자	박복례	임원식	임현욱
용량	504 kW	539 kW	302 kW
설치장소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58-31번지 일원		
면적	33,755㎡		
사업개시 및 운영	2027년 09월 사업개시예정 (운영기간은 개시 후 20년간)		
- 사업계획서 열람방법 : dasbak86@gmail.com (이메일 문의)
- 의견제출기간 : 2024.0.23.~2024.01.29.
- 의견제출방법 :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여 우편 및 E-mail 제출바랍니다.

-우 편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30번길 41
-E-mail : dasbak86@gmail.com

2025년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 제안서 공모 안내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광주지역 환경개선 및 보전 정책수립, 현안문제 조사연구, 산학연협력기술개발 등의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공모함

- 추진목적
 - 광주지역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조사/환경기술개발/산학연협력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광주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친환경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공모분야

분야	공모 내용
산학연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지역 환경분야 유망 라이징 스타트업 발굴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연구 지속가능한 환경유지를 위한 오염물질 저감 및 자원회수 기술개발 연구 환경분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공정개선 및 신기술 개발연구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현안 문제해결 기술의 실증을 위한 기획연구과제 민원 해소 및 지역 특성에 따른 환경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현안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대기질 개선 등 대기분야 기술개발 연구 수질개선 및 안전한 수자원 확보 등 수질분야 기술개발 연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정책마련, 폐기물 분야 기술개발 연구
정책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자체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및 방향 제시 마련을 위한 연구(단, 법령에 의거한 법정과제는 제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분석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기타	광주지역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 현안과제는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담회를 통해 선정된 주제로 현안과제를 산학연협력으로 제안 시, 우선선정 대상임
- 연구과제 선정절차

과제 공모	사전검토(사제구경)	지원위원회	환경부	중심센터	연구실장/유역환경청
내부 심사	정책 활용도	직접성 타당성 검토	연구 제안서 선정	중복성 검토	연구 책임자 공모 및 선정
준비 (24.9월)	1단계 (24.10월)	2단계 (24.10월)	3단계 (24.12월)	4단계 (25.1월)	5단계 (25.2월)
- 연구사업 지원 규모 및 방법
 - 과제(수) 32건 내외
 - 지역 현안 해결 연구과제에 산학연협력연구 우선 선정(공모분야 참조)
 - 연구비) 과제당 500만원 내외
 - 산학연협력 과제에 경우 기업 부담금(30%, 현물포함), 외부기관의 출연금이 많을수록 우선 선정 가능
 - 외부기관 지원금이 있을 경우, 효과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연구비 증액 예정
 - 과제수/지원규모는 2025년 환경부 예산편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된 연구비는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기간) 2025년 2월~11월말
 - 공모(인) 제안서 유의사항
 - (중복여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추진 중인 환경관련 연구,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추진한 1999-2024년도의 연구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과제제안
 - (성과활용) 연구성과를 필요 달성할 수 있는 과제 제안
 - 정책방영 : 정책 수립 및 근거자료/민원대응 및 해소/추가사업 반영 등
 - 학술활용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SCI·비SCI, 단, 학술발표는 제외)
 - 특허출원 및 등록 : 특허 출원/등록 및 실용신안 등록
 - 사업화 : 실세계약을 통한 사업화
 - (기술) 녹색환경지원센터 세부운영규정 별표 10 항목에 의거하여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아래의 기술료(연구결과물 소유기관, 주관연구기관 기준)를 센터에 납부(-중소기업 : 센터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센터지원금의 30%, -대기업 : 센터지원금의 40%)
 - 신청방법
 - 참가자격 : 행정기관,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사회·시민단체, 기타 등
 - 제출기간 : 2024. 9. 4. (수) ~ 2024. 9. 25. (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연구개발사업계획(안) 제안서(파일명 : 제안서.hwp)
 - 제출방법 : www.gjgoc.or.kr 공지사항의 제안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기한연수)
 - 문의 및 제출처
 - 담당자 : 교육·연구 부장
 - 주소 : (우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제1산학협력공작관 301호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 누리집 : http://gjgoc.or.kr
 - 이메일 : seheerim@daum.net
 - 전화 : (062)530-3991, FAX : (062)530-3994

2024. 9. 4.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